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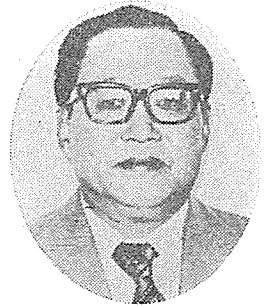
卞 億 萬
韓國機械工業
技術囑託

國內 最初 客車 製作
현장 경험 살려 후진 양성 기여

第8回 科學의 날 記念式典에서 産業勳章 銅塔을 褒賞 받은 卞億萬氏는 受賞所感을 「기쁘니다. 앞으로 國內 鐵道車輛製作 技術向上에 專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1925년 京城鐵道學校 工作科를 마친 후 50餘年間 交通部 永登浦 工作廠, 서울 工作廠 等に 勤務하면서 國內 最初의 代用客車 製作에 寄與하였고 1961年 停年 退職後 다시 仁川 工作廠 技術顧問 및 一般職(工員)으로 勤務하면서 後進技能工의 車輛製作 技術指導와 養成에 獻身하였으며 1964年 作業中 事故로 右手切斷의 公傷을 입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繼續 生産現場에서 技能工으로 活躍하고 있다.

특히 그의 專門的 技能役活은 客車車體의 Cambe 의 설정, 外板다듬질처리, 판박의 溶接變型防止 리벳(Rivet) 構造를 용접 구조로 변경처리 等 現場經驗을 통한 技能開發로 우리 나라 生産技術發展에 크게 功獻하였다.



金 枝 鳳
纖維試驗檢査所
副 理 事 長

연속염색가공 생산 기술 향상
紡織技術開發에 寄與

産業勳章 銅塔을 褒賞 받은 金枝鳳氏는 30餘年間 京城紡織, 金星, 太平, 亞州 및 興安化織 等에서 技術職에 從事하면서 紡織技術者 養成과 새로운 섬유 開發에 공헌한 技術者.

1967년에 아마紡織施設의 溫濕度管理 技術을 導入 染色加工技術을 開發하여 軍服地 國産化에 寄與했으며 在來式 염색加工技術로부터 連續染色加工 技術을 開發했다.

金氏는 高等考試 紡織 試驗委員, 標準規格 審議會幹事, 섬유공학회 副會長 等を 歷任한 바 있으며 특히 政府 第1次 5個年計劃에 依해 섬유 기간산업으로 設置된 비스코스 레이온공장이 品質粗惡으로 不實化된 것을 生産技術 改良으로 原價切減 및 品質向上으로 이끌어 黑字工場으로 發展시켰다는 것.

1972년에는 越南에 500萬弗 輸出實績을 올린 바도 있어 國家産業發展에 功獻했다.